

차세대 영향력있는 크리스천 지도자를 키워내고자

비전팀의 청소년사역 구체화 : 공개강좌, 자료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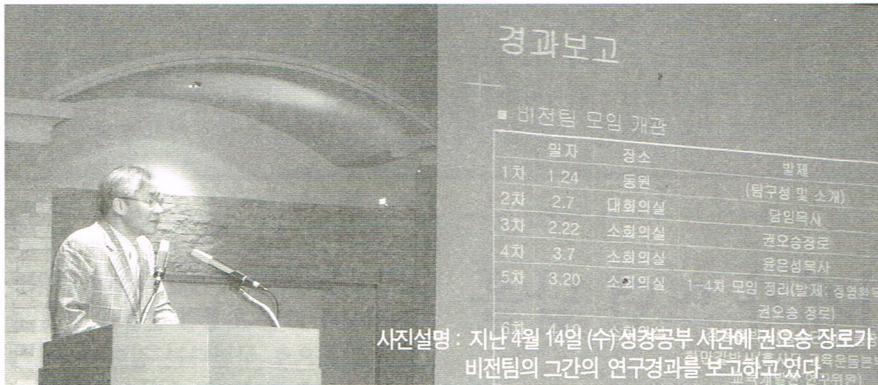
비전팀은 지난 4월 11일(토) 오후 3시 소회의실에서, 홍사단 사무총장 장동현 박사와 홍사단 교육운동본부장 한만길 박사를 초청하여 6차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청소년사역 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는 첫 번째 모임이었는데, "홍사단의 청소년운동 발자취",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희망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홍사단의 청소년운동과 교육운동 본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세계화시대 민족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홍사단과 '차세대 영향력있는 크리스천 (전문) 지도자'를 키워내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상통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홍사단의 설립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두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홍민기 목사 초청 비전공개강좌

"다른 교회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달라"

"지금이야말로 청소년사역의 적기"

4월 14일 수요일성경공부 시간에 청소년사역자 홍민기 목사(강남교회, 브릿지임팩트



사진설명: 지난 4월 14일(수)성경공부 시간에 권오승 장로가 비전팀의 그간의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대표)를 초청하여 청소년사역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홍 목사는 신명기 6장 4-9절을 본문으로 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청소년사역의 적기라고 말했다. 주님의교회가 청소년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다른 교회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지금도 밤 12시에 학원이 끝나면 학원문 앞에서 아이들을 만나 함께 떡볶이를 먹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홍목사는,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편들어주는" 사역의 모습

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날 설교전에 청소년사역 비전팀을 이끌고 있는 권오승 장로가 <비전팀 1차 자료집>을 중심으로 '청소년사역의 집중화를 위한 논의 정리'라는 제목의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비전팀이 그동안 6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비전팀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강사들을 초청하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청소년사역의 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사진설명: 초청강사 홍민기 목사의 설교모습

4부예배, 부활기념 뮤지컬공연

청년부 뮤지컬J,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을 그려 감동의 시간

지난 부활절주일 4부예배에서는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었다. 청년부 내에 활동 중인 예그리나 중창단, 그리고 워십댄스 사역팀 young.H.O.N.의 무대가 예배 중간과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새롭게 준비한 문화사역팀의 뮤지컬 공연 '뮤지컬 J'를 볼 수 있었다. 지난 해부터 청년부에서는 다양한 문화 사역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날의 뮤지컬 공연은 그간 문화 사역팀의 수고와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뮤지컬의 내용은 집 떠난 탕자가 예수님을 만나

뮤지컬 공연을 같이 하며 복음을 듣지만 결국 회심하지 못하고 떠났다 나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다. 배우들의 연기력이 아마추어라고 하기엔 무척 훌륭하여서 많은 감동을 자아냈다. 이날 선보인 뮤지컬의 제목은 'J' 복음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코믹하고 감동의 요소를 첨가했다. 이 뮤지컬은 크리스찬 뮤지컬팀인 '마곳간'의 창작뮤지컬이다. 청년부 뮤지컬팀은 마곳간팀의 연출의 도움을 받아 4개월간의 연습 끝에 성공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에 참여한 주인공들은 전부

아마추어들이었는데, 공연을 본 사람들은 '배우들을 어디서 초빙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무튼 4부예배는 다양한 문화 공연을 시도함으로 크리스찬이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채찍질 장면에 여기저기서 눈물

다음번 영화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지난 부활주일(4월11일) 오후 4시, 을지로 중앙시네마에는 주님의교회 교인들이 하나둘 모여 들기 시작했다. 항상 교회에서만 모이던 교인들이 영화관에서 만나니 같은 교회의 교인인 것만으로 인사가 되고 색다른 반가움에

정다움이 오간다. 여러 교역자와 장로의 안내로 중앙시네마 3관에 모여 3관의 1, 2층이 가득 채워 앉기 시작했다. 영화관람 전 이창현 목사의 찬양인도가 있었고, 문동학 담임목사의 짧은 말씀 후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교회의 말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바빠 모이다 보니 예정시간에 자리가 빈 곳이 많아 영화관의 협조를 얻어 10여분 늦게 영화상영이 시작되었다. 주님의 마지막 12시간을 담은 영화가 갯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갯세마네에서 체포되고, 대제사장에게로,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려가는 모습이 이어졌다. 계속해서 매를 맞고 채찍맞으시는 장면이 나오면서부터 영화관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2면에서 계속)

초등부, 5월2일

친구초청잔치 계획

성경퀴즈대회도 준비

4월 11일(일) 오후 1시부터 초등부 교사 월례회로 모였다. 참석인원은 초등부 부장과 전도사를 포함하여 16명이다. 신재은 교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모임은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과 사랑의 기도로 처음부터 성령충만하였다. 첫 번째 안건은 5월 2일에 있을 '친구초청 잔치'와 '성경 퀴즈 대회'였다. 초청 잔치에는 2인 소극과 인형극, 놀이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고 실내 장식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재미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했다. 교사들은 모두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더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있었다. (2면에서 계속)

앙코르,

매주일 찬양연습에 몰입

어버이날과 무지개 축제를 위하여

앙코르 찬양대의 연습이 주일마다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5월 9일(일) 어버이날과 5월 16일(일) 무지개 축제때 찬양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주님의교회 60세(1945년생)이상 교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앙코르 찬양대 단장인 신정웅 안수집사는 "계속 앙코르찬양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남녀별로 많이 참여하여 어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며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 또 부부중 한 분만 60세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찬양대 연습은 주일 1시 5층 찬양대실에서 하고 있다. 찬양대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찬양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하며 앞으로 함께 할 새 대원을 기다린다.





사진설명: 호산나 찬양대, 양동훈 장로(지도), 담임목사(설교 및 축도)

장신대예배 담임메시지

“신학교와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계기되어 기뻐”



호산나 특별찬양, 강사문 교수를 지원하는 석좌교수 약정서도 교환

지난 16일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예배당에서 20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주님의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구약학교수인 강사문교수를 지원하는 석좌교수 약정서를 교환하였다. 우리교회에서는 당회원을 비롯한 성도들과 호산나 찬양대원을 포함하여 약 100명이 참여하였다. 예배 전에는 영상물을 통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의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보았고, 이어서 총장인 고용수 목사가 주님의교회를 소개하고, 예배를 인도하였다. 양동훈 장로의 기도와 문창복 장로의 성경봉독에 이어 문동학목사가 누가복음 19:1-10절을 본문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문동학목사는 메시지를 통하여, 신학교와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계기가 된 기쁨을 전하고, 본문 말씀을 토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신학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나서는 사역자가 될 것을 호소하고, 바로 그곳에 진정한 신학이 있고, 참된 영성이 있음을 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님의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을 제시하여, 신학도들에게 교회와 교회사역자가 풀어야 할 비전을 깊이 공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주님의교회의 발자취와 비전을 들은 학생들은, 남다른 교회의 모습에 깊은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예배 후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함께 나누며, 신학교와 교회가 교제하며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1면에 이어서)

채찍질 장면에 여기저기서 눈물

다음번 영화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로마군인들은 마치 게임이라도 하듯이 서로 웃으면서 주님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여 인간속에 내재한 잔인성과 죄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십자가형이 내려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골고다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장면을 너무도 생생해서 보고 있기에 힘든 시간들이었다. 영화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후 무덤에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나오는 길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다음번에 다시 이런 영화를 만든다면 그 영화제목은 부활후의 주님을 그리는 “그리스도의 영광(The Glory of the Christ)”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님의교회에 무지개가 뜨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5월16일, 2004 무지개축제

지금도 작년 무지개 축제 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던 감동적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되어 서로 붙잡고 울며 기도하고 찬양했던 감동적인 시간, 결코 그 시간을 잊을 수 없다. 이제 5월 16일, 그 두 번째 무지개가 드디어

떠오른다. 올해 무지개 축제가 작년 무지개 축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작년은 외부에서 진행팀이 와서 명랑 운동회를 진행하고, 한 마음의 장은 CTS(기독교 텔레비전)에서 ‘클릭, 아름다운 우리교회’라는 첫 방송의 공개 방송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올해는 순수 우리 교회 성도들에 의해 구성된 진행팀에 의해서 명랑 운동회가 진행되고, 실외에서가 아니라 대예배실에서 1년간 우리 교회 안

에서 이루어진 감동적인 다양한 사역들을 영상과 그날 초청된 분들과 함께 잔잔한 감동으로 꾸민다는 점이다. 이 행사를 아름답게 이뤄내기 위해 최창섭 장로를 준비위원장으로 행사 실행위원들과 진행위원들이 모여 행사의 윤곽을 구체적으로 잡아가고 있다. 4주후에 있을 무지개축제는 성도들 모두가 주인공이며, 자신이 참여하고 봉사하여 땀 흘릴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최선을 다해 수고함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을 서로에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정립전자직원 초청 작은음악회

4월20일, 오후5시, 정립회관강당에서

장애인부(부장 김창안집사, 권철 한군 회집사)에서는 4월 20일(화) 오후 5시 정

립회관 강당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정립전자(장애인이 근무하는 전자제품 조립 및 만화영화 색칠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초대하여 작은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1부는 식사를 하고, 2부에는 작은 음악회를 마련하였다. 정립전자에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20여명의 교우들이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100명 가까운 정립전자 직원들을 초대하여 자연스럽게 ‘레위파티’를 통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작은 음악회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하나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작은 음악회는 김영숙권사와 학교제자들이 준비하였고, 이날 행사에 일부 당회원들과 장애인부와 봉사부원들이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장애인부를 통하여 장애인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낮은 자와 작은 자를 위해 오셨던 주님의 정신을 본받는 것이기에 오히려 우리 교회로서는 선물이 될 것이다. 이번 제2회 정립전자 직원 초청음악회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시각장애집사님 부부, 그리고 정립전자 직원 여러분은 우리의 소중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 기도

(1면에 이어서)

초등부, 5월2일 친구초청잔치 계획 성경퀴즈대회도 준비

친구 초청 잔치가 있기 전 2회 정도로 교회 주변에서 어린이를 위한 노방전도를 하기로 했다. 참석 인원은 10명~12명. 노방 전도시 전도지보다 간단한 메시지를 넣은 간식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어서 성경 퀴즈 예상문제를 나누고(선생님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 만큼 난이도가 높다.) 출제 위원도 위

촉하였다. 출제위원은 문희곤 전도사님으로 확정, 권혁준 선생님도 돕기로 했다. 두 번째 안전은 메가박스에서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관람하기. 최상인 안수집사와 몇몇 가족들도 함께하여 19명 참여하였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빨리 숨지셨는지(십자가에 달리신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 영화를 만드셨는가를 서로 이야기했고 맛있는 저녁식사로까지 은혜가 이어졌다. 특별히 초등부는 사랑과 기도로 초등부를 이끄시는 박지원 부장의 약한 눈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



사진설명: 새로나온 친구를 환영하고 있는 부흥주의 초등부 예배 모습

... 시험
량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람하게
하시느니라.

교회학교 교사 미국 WCA컨퍼런스 참석

5월7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시카고 AWANA와 월로루크교회 방문예정

교육위원회는 5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미국 시카고와 세인트 루이스를 방문하는 연수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김현령 전도사와 10여명의 교회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참가팀은 7일 출국하여 미국 시카고시에 도착, 8-9일 월로루크교회 토요일 열린예배와 주일학교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11-12일 지난 교사세미나에 소개받은 주일학교 후속프로그램인 AWANA 체험을 위해 AWANA 본부를 견학하게 된다. 13일 세인트루이스로 이동 14-

15일에 WCA Conference를 참석하게 된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How to Build a Contagious Church"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배우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셨는가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이번 연수는 단기간의 연수이긴 하지만, 교회학교 지도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귀한 기회로 주님의교회 교회학교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를 다녀와서

깨어져 가는 가정이 회복되는 현장을 체험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강한 소망과 가능성을 품을 수 있게 되어

3월 20일(토)부터 5주간 진새골 사랑의 집에서 실시하는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에 정희성목사, 윤의탁집사, 배익환집사가정이 참여하였다. 하가훈(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은 이번 41기에 총 30가정이 참여하였는데, 구성원을 보면 참으로 다양하다. 40대~60대로 연령제한이 있지만, 교회를 전혀 모르던 가정도 추천을 받아서 오게 되었고, 아내의 권고로 남편의 권고로 가정의 풀리지 않은 답답함을 안고 들어 온 분이 대다수를 이룬다. 토요일 저녁 5시부터 주일 오후 6-7시를 초과해서 진행된 하가훈은 우리교회가 담당해야 할 내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가훈을 스케치 해보면, 부부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더 나은 가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분야별 강의가 진행된다. 조별로 그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픈 가정의 현황들이 조원들에게 여과없이 그대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었고 그래서 공감하기도 하고 특정부분에서 잘 극복한 가정은 조언을 해 주기도 했다.

첫날 조별토론부터 눈물바다가 되는 조가 있었고, 부부싸움으로 다음주에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아픔에서 치유를 경험한 조장들의 헌신적인 설득으로 2~3주를 거치면서 대다수의 가정에서 과거의 사랑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다.

우리 주님의교회도 깨어져 가는 가정의 현실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첫주의 얼굴표정과 3주째의 얼굴표정이 천국과 지옥을 연상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몇 번의 만남이었지만 하가훈 기간을 통해 부부뿐만 아니라 조원들 간에 깊은 친밀함이 쌓이게 되었고, 매주를 거듭할수록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작지만 큰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 볼 수 있게 되었다. 가정의 기초에 대해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뿐 아니라 가정경제와 대화법 친밀함등을 다루었다. 강

대한 강한 소망과 가능성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공개적인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한가정이 치유될 뿐 아니라 그곳에 참여한 모든 가정으로 치유가 확산되어 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수없이 깨어져 가는 가정! 사랑했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해 보자!' 라는 강한 도전을 가지고 사랑을 향한 행진이 있는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 주님의교회도 깨어져 가는 가정의 현실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시대의 최대 이슈가 가정의 붕괴라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또 다른 가정들을 치유해주는 가정회복을 향한 사역에 눈을 떠야 할 것으로 본다.

모친의 병상세례 손치아집사(4교구)

손치아 집사(412, 정립구역)의 어머니가 아산병원에 당뇨합병증으로 입원하셨다. 처음 갔을 때 어머니는 55세라는 나이에 비해 매우 연로해보이시는 모습이였다. 당뇨합병증으로 심장이 아프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발바닥이 아픈 증상이 있어서 5월 중순경에 수술날짜를 잡았다고 손치아 집사가 대신 설명을 해주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표정이 없으시고, 지금 상황을 순응하며 받아들이시는 모습이였다. 어머니는 안동에 아들(손집사 오빠)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사는 평범한 시골분이다. 윤덕영 교구목

사는 환우의 영적문제를 먼저 염두하고,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다. 첫 번째 심방을 마치기 전에 손을 가만히 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어머니는 아마 처음 당하는 일이어서 그저 무덤덤하게 눈을 감고 가만히 계셨다. 그런데 수술날짜를 잡아놓았지만 돌연 의사선생님이 수술 보다는 그대로 맥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며, 생각보다 병세가 심각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손치아 집사의 요청에 따라 병상세례를 하게 되었다. 김금숙 집사(피택권사)와 함께 4월 10일 11시 토요일 아산병원으로 갔다. 손발을 주물러 드

리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저희가 왜 온 줄 아시죠?" "예" 대부분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게 '예' 하는 대답들이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조용히 문답에 이어서 세례를 베풀었다. "주여, 김금숙씨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선물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같은 입원실에 있는 가족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왔다. "급할 때 서슴치 말고 알려주세요."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 주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머니에게 머물기를 기도하였다.

청년부의 특별한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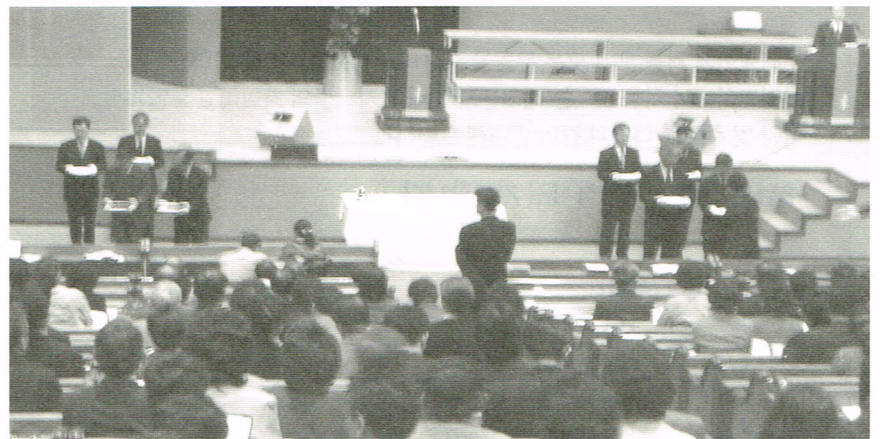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으며 삶을 나누어

청년2부 소속 1978년생은 주일마다 특별한 모임을 갖고 있다.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현재 구역모임교제인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그것. 3월달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77년생도 몇 명이 더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대략 15명이 된다. 조재연자매가 이 모임의 장으로 적극 모임을 만든 장본인이다. 주일이면 4부예배를 드리고 조모임을 가진 뒤 오후 6시 30분 친교실로 모인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공동된 열망으로 시작하여 모임은 2~3명으로 그룹을 짓게 된다. 서로가 읽고 묵상하다 생각한 점이나 깨달은 것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 나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서문과 추천글까지 빠뜨리지 않고 함께 진지하게 읽고 서약서에는 둘러가며 서로의 싸인을 적어 개개의 책에는 전원의 이름이 들어갔다. 외울말

씀을 철저히 외울 것, 한 주에 3~4과를 꼭 읽어올 것, 또 특별한 사유 없이는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했다. MT가 있던 주일만 제외하면 계속 공부해가고 있으며 4월 11일에는 특별히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시간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목적이 이끄는 삶' 40과 12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당부했다.

3남선교 정기모임, 오늘 2시30분 친교실에서

제3남선교회 정기모임이 금일 오후 2시30분 교회1층 친교실에서 개최된다. 우리 교회 제3남선교회는 출생년도가 1950년 ~ 1954년인 교회에 등록된 남자



사진설명 : 성금요일 성찬식 모습

성금요일 저녁 성찬예식은 제자리에 앉아서 성찬에 참여하는 보통 때의 성찬예식과는 달리, 모든 교인이 앞으로 나가서 참여하였다. 한사람 한사람 앞으로 나가서 떡을 포도주에 찍어 입에 넣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엄숙하고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

성도들로 구성되어 현재 약 250 여명의 인원이 해당된다. 50대 같은 연령층의 형제들과 주안에서 대화를 나누며 영적, 사회적 경험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금년도 3남선교회의 목표는 '공동체적 교제를 통한 믿음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50 여명의 회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친교를 중심으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알게 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회원들께서 적극적인

으로 참여해 교회에 덕을 세우는 모델이 되면, 회원들께서 가져주는 관심이 3남선교회는 물론 우리 주님의교회에 큰 힘이 될 것이다.

1. 1/4분기 제직회

1/4분기 제직회가 이번주 수요일성경공부(4월21일)후에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2003년 결산보고 및 심의와 2004년 1/4분기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입니다.

2. 평양노회

평양노회가 4월19일-21일(월-수)에 강북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와 총대장로가 참석합니다.

3. 피택자 1일수련회

안수집사 및 권사피택자의 1일수련회가 4월25일(주) 오후3시30분 3층 초등부실에서 있으며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4. 부서별모임

- 좋은책읽기모임 : 오늘 오전 11시30분, 4층소회의실에서
- 3남선교회(50-54년생) 정기모임 : 오늘 오후2시30분, 1층친교실에서
- 비전팀 모임 : 오늘 오후3시, 소예배실에서
- 6여성교회 월례회 : 4월21일(수) 오전 10시, 지하1층 유치부실에서
- 교육위원회 미국연수팀모임 : 4월25일(주) 오전 10시40분, 4층 교회학교 사무실에서
- 앙코르함참단 모임 : 매주 오후1시, 5층 찬양대연습실에서

5. 안수집사회 정기모임

4월24일(토) 9시에 교회에서 모여 자가용편으로 예봉산(경기도 남양주, 해발 683m)에 봄산행을 갑니다. 안수집사

부부 및 안수집사피택자 부부를 대상으로 등산화,장갑,모자,간식,식수 등을 준비하면 되고, 하산후 식당에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참가여부를 이종석총무(011-272-0324)에게 알려주세요.

6. 자원봉사자 모집

함글함글편집부에서 교회신문 함글함글의 취재기자, 혹은 편집기자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또한 영상미디어부에서는 교회행사시 영상촬영, 영상편집, 예배실황중계및 녹화 등의 영상미디어 사역을 위해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이창현목사(011-466-4736)에게 문의바랍니다.

교우동정

◆ 김해련집사(43구역)는 두번 항암수술을 받았으나 장이 막혀 다시 삼성의료원에 입원한 검사결과, 암이 전이된 것은 아니고 장이 막힌 것인데, 의료진은 “우리가 할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막힌 장이 뚫리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한군희집사(4-12구역)의 모친 차순례씨가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몇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잠을 자는 것 같은 상태입니다. 병원측은 10개월 정도 두고 봐야 한다며 치료중이고, 호스피스부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번을 정하여 12명이 오전 오후로 방문을 하고 있으나, 24시간

세례식 안내

세례자격

1. 세례 : 교회 다니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으로서 본 교회 등록된 교인 (만15세 이상)
2. 입교 : 유아세례 또는 영세 받은 분으로서 본 교회 등록된 교인 (만15세 이상)
3. 유아세례 : 만2세 이하의 유아 (부모가 본 교회 등록교인이면서 세례교인이여야 합니다.)
부모 모두가 세례교인이여야 함, 자녀와 함께 교육참여해야 함
※ 1층 사무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기록하시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 교적이 확인되어야 참여할 수 있으니 소속교구, 구역을 확인하시고, 신청서의 주소란에 《주소》와 《교구》, 《구역》 및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 세례·입교

1. 문답 교육 : 4월 25일, 5월 2일, 9일, 23일 (주일 오후1시 30분), 제 3집회실 1층 (담당 : 이호 목사)
2. 문답식 : 5월 30일(주일) 오후1시 30분, 2층 중교 수련실 (1층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받은 후, 교역자의 안내를 받아 문답식에 참여함)
3. 세례·입교식 : 6월 2일 오후7시 30분 (수요성경공부시) 중예배실(지하 1층)
※ 오후 7시까지 입구로 오셔서 교역자의 안내를 받아 명찰을 받으시고, 예배실의 지정된 좌석에 예배 30분 전까지 앉으셔야 합니다.

청소년 세례·입교 안내

1. 문답 교육 : 5월 23일, 30일, 6월 6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4층 교회학교 사무실 (담당 : 김현령 전도사)
2. 문답식 : 6월 13일(주일) 오전 10시 30분, 4층 교회학교사무실
3. 세례·입교식 : 6월 20일, 오전 9시 30분 주일학교 예배시 (중등부 : 소예배실, 고등부 : 중예배실)

유아세례 안내

1. 유아세례 부모교육 : 4월 18일(주일), 25일(주일) 오후 1:30 소예배실 (1층 로비 입구) (담당 : 정희성 목사, 자녀들을 위한 탁아실이 별도 운영됩니다.)
2. 문답식 : 5월 2일(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소예배실
3. 유아세례식 : 5월 12일(수요일) 중예배실 (수요성경공부시)
※ 오후 7시까지 지하1층 중예배실 입구로 오셔서 교역자의 안내를 받아 명찰을 받고, 지정된 자리에서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유아세례식에는 부모가 다 참여하며, 사진촬영은 유아세례식이 끝난후 가능)
*유의 사항
통신교육은 없으며, 문답공부와 문답식에 전부 참여하여야 세례 입교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의 간병인이 곁에서 간호하고 있습니다. 한군희집사는 모친의 의식이 회복되어 병상세례를 받기를

희망하니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바랍니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주일)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정기 예배 (주중)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8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3.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 간	장 소	대 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4.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5.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7.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